

문화

■ 광주일보·문화재단 공동 문화나눔 상상강좌 제7탄

“아트페어는 미술품 장터이자 쇼케이스 기업·컬렉터 미술시장 활성화 앞장서야”

표미션 한국화랑협회장 ‘지금은 아트페어 전성시대’

“40여년 전만 해도 스위스의 바젤(Basel)은 인구 19만명의 작은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화화작품을 만드는 제약회사들이 몰려 있는 것을 빼고는 거의 내물을 만난 문화평화가 없었어. 하지만 최근 바젤에는 수많은 미술관과 박물관이 들어섰고 각종 박람회도 열려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회색도시였던 바젤이 문화도시로 변신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아트페어 때문입니다. ‘잘 키운 아트페어’는 도시의 품격과 명성을 높여주는 최고의 문화브랜드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역 미술인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서울 앞으로 다가온 ‘2011 아트광주’(9월1~4일, 김대중컨벤션센터) 때문이었다. 이날 강좌의 주인공은 표미션 한국화랑협회장(표갤러리 대표). 150여 개의 화랑을 회원으로 거느리고 있는 한국화랑협회의 ‘과워’ 때문인지 강연이 열린 빛고를 시민문화관에는 지역작가들 뿐만 아니라 미술대학 재학생, 갤러리 관계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광주문화재단과 MOU를 체결한 광주예술고 학생(한국화, 서양화 전공) 50여 명도 강연장을 찾아 미래 자신들의 꿈을 펼칠 아트페어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표 회장은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미술계의 빅 이벤트는 비엔날레였지만 지금은 동북아시아권에서만 매년 50~60개의 아트페어가 열릴 정도로 전성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아시아 미술시장에 대한 유럽과 미국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KIAF(한국국제아트페어), 홍콩아트페어, 베이징 아트페어, 싱가포르 아트페어 등이 ‘아시아의 날버 1’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는 “이 가운데 홍콩아트페어의 경우 아시아와 중국의 관문이라는 전략적 위치 이외에 미술품 면세혜택,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무국 운영, 차별화된 마케팅, 중국 ‘큰손’들의 관심 덕분에 가고시안 갤러리, 화이트 큐브 등 38개국에서 260개 갤러리가 참가하고 있다. 표 회장은 “아트페어는 단순히 미술품을 거래하는 ‘장터’만이 아니라 갤러리와 화랑들이 작가들을 미술관이나 큐레이터, 컬렉터들에게 선을 보이는 ‘쇼케이스’라면서 “지역작가들을 서울이나 국제무대에 진출시키기 위해서는 갤러리와 화랑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를 화랑들을 육성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일부에서 작품을 구입할 때 화랑을 거치지 않고 작가와 ‘직거래’하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표 회장은 ‘2011 아트광주’에 대한 날다른 관심을 드러냈다. 지난해 열린 ‘제1회 아트광주’의 경우 열악한 지역 미술시장 등의 이유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뮤지엄 아울렛’(신진작가들의 실험적인 작품전시)을 표방한 올해 ‘아트광주’는 독창성과 차별성에서 경쟁력이 돋보인다고 말했다. “광주는 디자인비엔날레와 비엔날레가 격년제로 열리는 등 아트페어가 성공할 수 있는 토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작가들의 역량도 국제무대에서 통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납니다. 문제는 아트마켓입니다. 작품이 거래되지 않는 아트페어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기업이나 컬렉터들이 지역미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거실에 그림 한 점 걸기’와 같은 캠페인을 벌일 필요가 있습니다. 작가와 지역을 살리는 ‘아트테크’는 세상에서 가장 ‘이름다운 투자’입니다.”



지난 25일 빛고를 시민문화관에서 열린 ‘문화나눔 상상강좌’에서 표미션 한국화랑협회장이 ‘지금은 아트페어 전성시대’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김래원의 영화 속 클래식 이야기



민중근 감독의 독립영화 ‘해화, 동’은 아름답고도 슬픈 청춘의 한 계절에 관한 동화이다. 비록 저예산으로 만들어진 영화이지만, 상업영화보다 더 강한 메시지와 더불어 가슴 한 편을 저릿하게 만드는 힘을 가진 작품으로, 서울독립영화제와 부산국제영화제 수상작이다. 영화의 제목인 ‘해화, 동’은 서울의 동네 지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인 해화(유다인)의 겨울을 말한다.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23살 해화는 유기견들을 돌보며 살아간다. 영화는 그녀 앞에 5년 전 갑자기 사라졌던 옛 연인 한수(유연석)가 나타나면서 시작된다. 고향학교 시절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해화. 그녀는 결혼에 대해 일말의 기대를 갖고 아이를 낳지만, 아이는 죽는다. 그렇게 믿고 살아온 그녀에게 한

그것. 각각 12곡의 소품들로 채워져 있다. 소품이라고는 하지만 연주하기에 난이도가 높고 상당한 기교를 요한다. 짧은 소품의 정열적인 멜로디 라인이 그대로 덧붙여져 있는 곡으로 오히려 후기에 작곡한 장식적 아름다움이 가득한 곡에 비해 청춘의 감각 없는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매력에 가득한 작품이다. 소품 연주 역사에서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사람은 루빈슈타인이다. 그가 남긴 위대한 소품 전집은 후학들에게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했으며, 그의 따듯하고 시정 넘치는 연주는 많은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았다. 최근에는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왔다. 특히 이 곡을 녹음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머레이 페라이어의 연주를 추천하고 싶

영화 ‘해화, 동’ 中 소품 ‘연습곡 제3번’

사랑과 이별을 위한 전주곡

수는 아이가 입양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해화는 결국 자신의 아이를 찾아 나선다. 영화는 둘 사이에 관계가 어떻게 상식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사랑과 좌절감을 다양한 스펙트럼을 통해 조명해 낸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 한수의 꿈은 피아니스트. 그는 사랑하는 해화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 노력한다. 한수가 피아노 연습실에서 휴대폰을 목에 걸고 그녀에게 전화를 통해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는 장면은 짝사랑 감동이다. 그가 연주한 곡이 바로 쇼팽의 연습곡(Etudes) 제3번이다. ‘이별곡’이라는 부제가 붙을 만큼 아름답고 감동적인 멜로디를 가진 이 곡은 영화 속에서 몇 차례에 걸쳐 등장한다. 쇼팽은 두 개의 피아노 연습곡을 작곡했는데, 작품번호 10번과 25번이 바로

다. 페라이어는 강렬한 타건, 명료한 터치로 쇼팽 작품이 ‘연습곡’이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시킨다. 비교적 뒤늦게 이 곡의 연주를 녹음으로 내놓았지만, 짧은 쇼팽의 기백을 느껴보고 싶은 이들에게는 최적의 연주이다. 소니의 DSD 녹음도 아주 뛰어나서 고급 오디오 시스템으로 이 음반을 감상하면 하먼 스텐커 사이에 스타인웨이 피아노의 풀 바디가 그려질 정도다. ‘해화, 동’은 보기 드물게 독립영화에서 클래식 음악을 사운드 트랙으로 사용하고 있는 작품으로, 감독의 명민한 감수성 덕에 음악과 스토리텔링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상처받은 청춘의 기억을 지우며 살아야 하는 해화, 그녀의 가슴 아픈 사랑과 이별을 노래하는 전주곡. 바로 쇼팽의 연습곡 제3번이다. <칼럼니스트·독립영화감독>



문화적 다양성 함께 즐기기

은암미술관, 지역·외국작가전

광주 은암미술관은 오는 9월8일까지 지역작가와 광주·전남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 작가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Diversity-문화적 다양성’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송숙남·오병욱·나명규·박광숙·변경삼·조용신·조강현·주미희·윤재원·최재영·김성우·김주희씨 등이 참여

해 개성 강한 작품들을 선사한다. 또 디산토, 더그 스투버, 마크 이튼 등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작가 7명의 작품도 함께 전시한다. 큐레이터 탁혜성씨는 “문화적 차이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서로의 다양성을 함께 즐기 위해 마련된 전시이며, 다양성과 풍성함이라는 기쁨을 맛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062-231-5299. /오명록기자 kroh@kwangju.co.kr



최재영 작 ‘씨름’

‘9월의 읽을 만한 책’ 선정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양성우)는 2011년도 ‘9월의 읽을 만한 책’으로 로버트 단턴의 ‘책의 미래’(교보문고 펴냄) 등 분야별 도서 10종을 선정 발표했다. 선정작은 빌 게이츠가 제안한 새로운 자본주의의 시선인 ‘창조적 자본주의’에 대해 세계 유명 경제학자들과 저널리스트들이 토론한 ‘빌 게이츠의 창조적 자본주의’(이콘 펴냄)를 비롯해 ‘복유립 디자인’(아트북스 펴냄) 등이다. /김대성기자 bigkim@

나주혁신도시 전문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에 투자하십시오! 상업용지·주거용지·이주자택·협이자택 슬로몬공인중개사 사무소

나라공인중개사 펜션텔 매도 전복순창군 북흥면 대방리 펜션텔 2007년 준공... 토지 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한국아메리우후문부근 코너... 과수원 매매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신진리

중앙공인중개사 병원건물 ☆.북구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정문앞 병의원... 상가건물.사옥 신축부지 ☆.서구 쌍촌동 운천 저수지 사거리 시내버스... 대지.전.답.임야 ☆.벽진동 55.567㎡(약1.684평) 평당65만

금당 공인중개사 감정가 이하 ☆.원룸부지, 북구 삼각동 180평 대출196천 매도2억천... 임대·교환 ☆.전원주택, 담양군 봉산면 쌍교리마을 대지168평

가은 부동산 상무지구 건물임대 분양면적 1350평 전용면적 900평 임대료 250만/평 층수 8,9,10층 층고 10m 추천업종 모든업종가능 분할가능 (공동 중개 가능) 상무지구 랜덤피아 사거리 371-4449 010-8289-8549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시실분 상가 전문소개입체인 저회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점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시장명세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회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111-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 옆 대인동 소형사건내편)